

GRACE 선교소식

2026년 7월 GMI-GKC 선교사 현황: 58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이번 주간에는 한국에서 4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미주 훈련을 위해 온 제16기 GMI 선교사 후보생들을 환영하며 미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GMI 선교훈련원은 지난 15기까지 총 190명의 귀한 선교사를 배출하여 현재 42개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되는 미주 훈련은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 능력과 영적 야성을 기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GMI의 선교 모토는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입니다. 이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후보생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삶으로 증명되는 선교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7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번 집회는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에스더 구국운동이 주관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한국에서도 250여 명이 등록하였고, 미주 각 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기도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녁 집회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무릎 꿇고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부터 LA 지역의 총현선교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부와 EM 청소년 부흥회는 사무엘 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웃 교회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모든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수많은 단기선교팀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16기 선학생 지도자 자질론 강의: 7/13
- 복음 통일 컨퍼런스 저녁집회 말씀인도: 7/14
- 남가주 리더십 기도회 기도인도: 7/16
- 총현 선교 교회 부흥집회: 7/17-7/19
- 총회 사역: 7/20-7/23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육부와 EM을 비롯하여 성도님들이 16개국으로 파송되고, 또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온 교회가 선교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단기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선교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케냐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케냐 킬리피(Kilifi) 지역에서 진행된 그레이스 인카운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그레이스 인카운터는 케냐의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이후 자신들의 교회에서도 이를 적용하며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한 강의를 맡아 스와힐리어로 말씀을 나누고, 팀 멤버로 함께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은혜



의 시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케냐와 탄자니아, 이스라엘 등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며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다음세대를 향한 배움

7월 1일부터 4일까지는 킬레오(Kileo) 지역

에서 진행된 교육부 단기선교 사역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사역은 청소년 수련회(Youth Camp)와 성경학교(VBS)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청소년 수련회 사역이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는지를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선교팀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선교지에서 단기선교팀을 어떻게 맞이하고 함께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얻었습니다.

또한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허락을 구하는 일부터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들으며, 선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 남영미 선교사

우리가 나고 자란 모국어로 오차 없는 정확한 복음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계 언어조사 기관인 에스놀로그(Ethnologue)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세계 7,170개 언어 중에서 3,226개의 언어(44%)가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민족의 문화와 영혼의 통로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자도 문법 체계도 없는 소수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단어 하나, 문장 구조 하나에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부족의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도울 때에 들었던 말을 저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부족어 문법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 보니, 이전에 현지인들의 직관에만 의존해서 번역했던 성경은 단순히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 번역해야 할 정도로 오류가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문법으로 기술되는 성경은 복음의 뜻이 흐려지고, 현지인들에게 조차 읽혀지지 않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정확한 언어의 분석과 문법 규명은 현지인들의 심장을 울리는 온전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멸해 가는 언어들을 보존하기 위해 김운용 선교사는 다음 달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에서 개최될 학회를 운영위원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소수 민족 언어와 문화의 조사 및 유산들을 보존하고 개발하며, 연구자료의 문서화 및 전수를 통해 절멸 위기에 처한 민족이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는 사라져 가는 언어의 기록과 보존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김 선교사 외에 7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복음의 문을 넓히고자, 학회 발표와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김운용 선교사에게 주신 언어학적 지식과 달란트가 성경 번역 장벽에 부딪힌 전 세계 선교지마다 아낌없이 흘러가 동료 선교사님들의 손을 든든히 붙들어주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번역)

모든 방언과 자신들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은, 이름도 없이 언어의 장벽과 씨름하는 선교사들의 땀방울과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M국

한OO / 김OO 선교사

선교사의 주요 사역

올해로 선교사 생활이 10년째 됩니다. 초기에는 언어습득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제자 공부를 위해 현지 언어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손기술이었습니다. 저희는 4개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전등, 스위치, 변기 부속품, 수도꼭지, 차단기 교체 작업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일일이 일꾼을 부르기도 힘이 들고 비용도 들어서 손재주가 없는 제가 마지못해서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합니다.

그룹홈 사역

여자 그룹홈 막내 H 자매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5월에 실시된 정기 건강검진에서 “심장 중격결손: 그리고 비정상적인 폐정맥류로 인한 우심방 비대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쉽

게 말해 심장에 구멍(2.9cm)이 있고 기형적인 혈관이 있어서 우심방이 거저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선천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구멍은 커지고 아이의 상태는 나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건강했고 성격도 활발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M국의 의료기술이 낮은데다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는 심장수술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한국의 선교단체에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내년 4월 방학 중에 아이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이의 부모가 가난하여 그들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학원 사역

한글 제자인 “S자매”가 마침내 한국정부지원 장학생 시험에 합격하여 올해 9월부터 한양대 AI 학과 대학원생이 됩니다. 그녀는 10년 전에 한국에 유학을 갈 꿈을 꾸었습니다. M국 정부가 대학시험 성적 우수자들에게 한국 방문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 발전된 한국을 보고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한글을 공부하다가 친구를 통해 8년 전에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Y도시에



집이 있어서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별문제가 없었는데 쿠데타 이후 군인인 아버지가 외곽으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했고 방학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집안 살림때문에 그녀는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고 부모님에게도 더 이상 손을 벌리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신이 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셔서 길을 열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일하며 Y도시에서 학업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대학원 2년을 마친 후 박사과정도 밟을 계획입니다. S자매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오판석 / 정미라 선교사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는 고온다습한 곳인데 습도는 평균 80%이상입니다. 저희가 머물던 키디니는 섬의 중앙부에 위치한 시골 지역인데 매일 6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녁엔 더워서 잠을 설치게 되고, 낮엔 비오듯 땀을 쏟아내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큼니다. 동료 선교사님은 에어컨이 있음에도 전기가 없는 시간이 많아서 결국 땀띠가 심해져서 두 달을 병원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 래도 사역지인 두 학교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며 하나님께 서 열여 주실 사역에 대한 기대로 두 달 동안 저희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중 썩썩하게 잘 버티던 미라선교사가 한 달이 지나자 미열을 동반한 감기인듯 말라리아인듯한 증상으로 몇 주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말라리아 테스트는 음성이 나와도 선교사님들의 오랜 경험상 말라리아가 맞다며 약을 주셔서 먹으며 버텼는데 체력이 떨어져서 인지 예전에 앓았던 천식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40도에 이르는 고열로 며칠을 앓으

며 탈진과 탈수가 와서 시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염증수치가 너무 높은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맥주사를 통한 해열제 투여로 겨우 열은 안정이 되었는데, 염증의 원인이 뭔지를 몰라 매 8시간마다 해열제와 항생제를 투여받지 않으면 다시 고열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시 열이 오르는 시간에 간호사가 오지 않아 병실과 복도를 이리저리 헤맸고, 어떤 날은 열이 떨어지는데 한두시간이 지나고 겨우 간호사를 찾아 맞기도 하고, 계속 잘못된 곳에 혈관주사를 놔서 막히면 다음 당번의 간호사들이 와서는 다시 혈관주사를 다른 곳에 놓는 등 괴로움이 심했고, 3일을 그렇게 버티다가 많은 고민 끝에 담당의사에게서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받아서 한국행 길에 올랐습니다.

감사하게 긴 비행시간을 잘 견디고 한국에 들어와서 응급실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왔기에 병원도 담당 보건소도 에볼라 감염병에 대한 경계로 인해 감염내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열은 3일만에 안정이 되었지만, 아직 염증수치가 정상을 한참 웃도는 것을 알게 되어 담당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은 탄자니아 물에 서식하는 주혈흡충증라 불리는 기

생충 감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잠복기인 최소 두달을 지켜본 후인 6월 24일에 다시 혈액과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지난 주에 검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7월 8일 검사 결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탈진으로 바닥난 체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한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잘 못 쉬면서 어지러움증으로 걷기도 힘들어 했고, 또 소화의 어려움으로 잘 먹지도 못해서인지 회복이 더뎠서 지켜보는 저로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차츰 차츰 조금씩 회복되더니 이제는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파송 선교본부와 디브리핑을 하면서, 잔지바르는 미라선교사의 천식과 체력의 한계를 생각하여 탄자니아의 다른 도시로 옮기든지 아니면 이전 선교지인 알바니아로 다시 가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파송 선교부와 함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중보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본

최대웅 / 권나현 선교사

순교의 땅에 진리의 뼈대를 세우며

과거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헌신이 스며있는 이 땅에서, 저희가 붙들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뿐임을 절감합니다. 매주 주일예배 전, 온 성도가 10분씩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묵상하며 개혁주의 신앙의 뼈대를 차근차근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코조지 교회와 연합하여 오랜 숙원이었던 묘지와 납골당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우상과 죽음의 문화가 짙은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심는 거룩한 마음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사순절과 부활절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능

력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신도를 깨워 주님의 일꾼으로

선교지의 진정한 토착화는 현지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갈 때 완성됨을 믿습니다. 1월 정기 회원총회를 통해 성도들이 교회의 주체로 서도록 조직을 재편했고, 4월 12일에는 요시무라 카요코 장로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눈물로 직분을 준비하며 교회의 헌법과 리더십 훈련을 받던 그 시간들은, 성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다듬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척박한 미전도 종족, 다음 세대를 향해 (다음세대·지역전도)

일본 선교의 미래는 복음 수용성이 가장 높은 차세대를 살려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영적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애쓰며, 3개 교회 연합 어린이 피크닉을 통해 아이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다가올 7월 여름 캠프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웃을 향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자 '새가족 예배 안내서'를 제작하고, 격달 첫째 주 화요일날마다 '초나가리 카페'를 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말씀과 경양식, 그리고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연합

작은 현지 교회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동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4월 말, 안산 빛나교회 14명의 단기선교팀이 방문하여, 다음 세대 교류와 지역 섬김, 노방 전도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또한 일본 기독교개혁파(RCJ) 중부총회의 여러 강자와 정기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고령화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함께 말씀과 기도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P국

정OO / 이OO 선교사

5월 말에 GMU신학교가 종강을 하고 이곳에서 500킬로 떨어진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에 버스를 전세 내어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숙소 없이 버스에서 자면서 오가며 평생 처음으로 산에 올라 즐거운 피크닉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두 센터에 있는 학교와 교회 스텝 전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대대적인 페인트 공사와 정비를 하고 부족한 시설 물도 구입하여 시설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동안 오랜 바람이었던 7인승 밴이 주님의 은혜로 한 대는 원거리전도 여행용으로, 한 대는 모슬렘 가정교회를 돌보고 그들의 가정에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할 팀원들이 이용할 차량으로 2대가 구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말경에 이틀에 걸쳐서 청소년 180여명이 모여 제 8회 기드온 청소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참석한 그들 전부를 제자사역으로 연결하여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기드온 청소년수련회가 끝나고 바로 여름성경 학교를 열었는데 마태복음 5~7장(총111절)을 외운 111명의 아동들만 참석하였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10개학교 교장과 교사 스텝 70여명과 마태복음 5~7장(총111절)을 암송할 줄 아는 아동 115명이 참석하여 한 학교에서 1명을 제비 뽑아 외우는 테스트를 하고, 이어서 말씀과 관련된 찬양과 드라마를 발표하여 경쟁하는 가운데 10개 학교 중 26명의 아동이 참석한 뉴라이프 학교가 우승하여 상금5만루피(약30만원)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역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지



속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사역자 집과 교회로 스스로 찾아오는 모슬렘 가족들 대상으로 치유사역과 복음 사역을 통하여 약 300여 가정들이 친척들과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집에서 성격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가정교회를 돌보고 계속적으로 순회하며 치유사역과 예배인도 기도를 하며 일하는 사역자와 그의 제작 동역자들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이 사역을 지속하도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I국

강OO / 이OO 선교사

9기 훈련생들

현재 훈련생 19명이 주님 안에서 훈련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폭발

신학교 졸업생들이 오는 10월에 편집 지역에 모여 '전도폭발 현장실습(OJT)'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I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90명의 사역자들이 5월과 6월에 걸쳐 5주간, 은혜한인교회가 주최하는 줌(zoom) 강의를 마칩니다. '전도폭발' 사역으로 I국 땅에 복음이 확장되고,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정이 불타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트러스트(Trust) 조직

I국 N신학교는 현지인에게 이양하는 절차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생들이 신학교 사역에 몸담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토착적 교회공동체를 세우는데 주체적으로 준

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트러스트(사단법인)"를 만들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사단법인을 만들면 3년 후 외국인 기부금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자체적으로 신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관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러스트(Vijay Development Center)"가 순조롭게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보드멤버(Board Member)

지속 가능한 N신학교 사역을 위해 보드멤버 7명을 지명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10년(2026년~2036년) 간 신학교의 재정과 학사 관련 업무들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학교 사역 뿐만 아니라, 현지 가정교회 개척들을 위한 세칙을 만들고, 흩어져 있는 졸업생들의 교회들을 지원하며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7명의 보드멤버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로 성령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합법적인 대처

지난 해 12월 예배를 드린다는 죄목으로 수감되었던 1기생 B형제가 풀려났다가 다시 수감되고 4월 말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힌두교도들의 공격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 가정교회들이 연합하여 종교법인을 만드는 것과 같은 합법적으로 교회

를 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합니다. 졸업생의 가정교회들이 힌두교도들의 물리적인 공격에 대처하고, 예배가 보장되는 협력의 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졸업생

전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삶과 사역에서 승리하도록, 성령충만함으로 교회의 부흥을 맞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3기생 D형제의 사역 돌파를 위해 성령님 친히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 주시길
- 4기생 S형제의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 7기생 P형제가 목 수술을 했는데, 잘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 8기생 S형제의 교회가 벽만 세워진 상태인데, 교회가 완성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

신학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신학교의 캠퍼스가 구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영육간에 강건함과 성령충만함, 그리고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

신동덕 / 신미희 선교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상상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실제 상황보다 늘 과장되어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상했던 것보다는 겪어보면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상은 늘 아름답게만 생각하는 과장된 너그러움이 있나 봅니다.

저희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어느 날 페르시아인들을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을 신학교에 입학시켜 6년이란 시간을 함께 하며 몇 명은 중도에 하차,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2026년 여름까지 4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4명 가운데서도 2명만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4명이 신학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졸업한 4명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2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현재 공부하고 있는 4명이 졸업 후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인가? 그들로부터 확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 후 선교사나 목회자

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굳이 후원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검증이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막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뜨거운 여름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테네의 태양은 늘 가깝게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인지 더 뜨겁게 느껴지고 늦은 밤까지 덥습니다.

아테네는 집을 떠난 난민들이 세계 정치속에 떠밀려 다니는 난민 대피소와도 같습니다. 어느 때엔 북유럽으로 떠나기 앞서 거쳐가는 장소로 난민가족들이 우글 우글 했다면 지금은 이미 북유럽으로 떠났던 그들이 2-3년이 지나서야 다시 그리스로 추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방된 그들이 더 이상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정한 일거리가 그리스에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늘어남에 따라 저희는 이번 여름부터 “Bible College”에 그리스어와 영어회화를 첨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아테네의 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거리입니다. 그다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료 배급과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 쫓아다니

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바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Bible College”는 그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난민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의식주 해결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듯 싶습니다. 난민들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난민캠프 사역만 하는 한국선교사님이 자신과 주님께 물었다. 난민이 필요로 하는 기름과 삼푸 등을 사 들고 가기 위해 그녀는 많은 물질과 시간을 허비한다. 그런 수고에 비해 현장에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난민들을 대하니 차라리 말씀을 전할 때는 위를 보고 전해야 낙심이 덜 된다고 하신다. 별 효과도 없어 보이는 난민캠프 전도여행을 위해 이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해야 하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답을 주셨다고 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의 상상은 늘 아름답게만 생각하는 과장된 너그러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항상 발 떼기를 주저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는 것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

임한곤 / 이길선 선교사

저희들은 지난 1989년 8월 1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파라과이에서 개척사역과 신학교 교수 및 학장으로 사역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로 북미의 멕시코로 발령받아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지난 9년여 사역도 현지 개신교 교단과 신학교연맹 등과 손을 잡고 동반자선교를 해오므로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충실한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고 계시며, 모든 이의 큰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 같은 교회사역과 신학교사역에 선교의 주

체 되시는 성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선교사역에 순종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의 향기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선교헌금, 신학생들의 장학헌금과 개척교회 보조헌금 등으로 동참하시는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멕시코 교회와 신학교에서 잘 섬기도록, 치안과 고산병, 멕시코 독감 등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사역할 수 있도록
2. 까미노신학교의 슬로건(세계는 한 구역이요, 한 주님의 교회다)처럼 8월 새학기에도, 멕시코는 물론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해야한

다는 선교의 비전을 가진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3. 까미노신학교의 부학장(현재는 임한곤 선교사)직을 맡을 적임자와 현직인 이사회원 2인이 총원되도록/ 사람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좋고 신실한 일꾼들이 선임되도록

4. 까미노노회 소속 된 교회들에서 금년 1월부터 집중하고 있는 새 신자반과 성숙반을 통해서, 전도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려드리도록

5. 산타페교회의 오텔로목사와 호르헤(심방과 청년지도) 전도사, 까를로스(부인회담당)와 까렌 전도사(영유아부 담당)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여 사역 잘 하도록

6. 북중미월드컵기간 동안에 전도대원들이 활발하게 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7. 부족한 선교비를 채움 받도록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출발점

<1분단상 154-7월호>

- 김대규 장로

섬김과 나눔은 서로 다른 성격으로 흔히들 생각한다. 섬김은 낮은 자세에서 타인을 보살피는 것이고, 나눔은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둘의 실상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같은 맥락의 선상에 있다. 그 근원이 사랑이므로 섬김은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세이고, 나눔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섬김은 보이지 않는 뿌리라면 나눔은 드러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심을 선언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성이 있는 사랑, 곧 하나님 성품을 토대로 한 참된 섬김과 나눔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방식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삶으로 나타내셨고, 자신의 생명, 몸, 피까지 내어 주심으로 나눔의 절정을 이루셨다. 십자가는 섬김과 나눔이 하나로 완전히 결합된 사건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 드러난 결정적 순간이다.

이리 볼 때 섬김과 나눔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섬김 없는 나눔은 자기과시로 흐르기 쉽고, 나눔이 없는 섬김은 실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헌신으로 남게 된다.

참된 나눔은 반드시 섬김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하며, 참된 섬김은 나눔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섬김을 일방적인 희생으로, 나눔은 단순한 자선행위로 이해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런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주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함을 보완하며,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상호적인 관계의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

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삶을 통해 비로소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에 그렇다.

이러한 삶 속에서 섬김과 나눔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된다. 이리 세워진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실제로 경험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섬김과 나눔은 더 이상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이 되며,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확인된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소유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았다(행2:44,45, 4:32).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 가운데 구현된 실제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이처럼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통로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생명의 행동이 된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삶은 섬김과 나눔이 함께 흐르는 삶이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섬김과 나눔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시작되는 자리인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이다. 가정은 사랑의 관계가 가장 밀도 있게 경험되고 있는 곳이다.

가정에서 진정한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섬김과 나눔의 본질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든든한 기초가 될 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참된 섬김과 나눔이 번져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서로의 진실한 돌봄. 부부로 시작해서 온 식구가 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서로를 돌우며, 섬기

고, 나누며, 하나의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회복되어지게 된다. 이는 마치 어린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소꿉놀이를 하는 모습과도 같다고 하겠다. 소꿉놀이같이 가정에서 순수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이해하며, 섬기고, 사랑으로 오손도손 재미있게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참된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서게 한다.

그런데 실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이 나고, 거리가 생기는 가정들을 보게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진정한 희생적 사랑과 이해, 그리고 참된 섬김과 나눔의 결핍에서 기인한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개인주의적 경향이 짙어지게 하는 숨은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를 되돌려야 한다. 시작이었던 순수함, 아낌없이 돌보고, 채워주고 싶은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인 섬김과 나눔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섬김과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화평과 희락이 함께 한다. 이리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번져 갈 수 있게 된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M국 한OO / 김OO 선교사

1. 영육 간에 강건함 주소서
2. 동역자들과 하나되게 하소서
3. 선교센터를 세워 주소서
4. H자매가 내년에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5. 고3 아이들(3명)에게 지혜를 주소서
6.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소서



P국 정OO / 이OO 선교사

1. 개종한 모슬렘 가정들이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되게 하소서
2. 기드온 청소년캠프로 연결된 모든 청소년들이 제자사역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3. 성경 암송을 주 목표로 하는 VBS 행사가 더 발전되고 이 나라 전역으로 확산되게 하소서
4. GMU 가을학기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고 새로운 교수진과 교사가 더 연결되게 하소서
5. 여름방학기간에도 모든 사역자들이 세계 각지와 전국에서 모이는 모슬렘캠프와 모스크 그리고 많은 미 전도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 남영미 선교사

1. 학회를 준비하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잘 준비되게 하소서
2. 이번 학회를 통해 소멸 위기 언어들이 보존되게 하시고, 많은 선교지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현지인들의 심장을 울리는 온전한 성경을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소서
3. 김운용 선교사에게 주신 언어학적 지식과 달란트가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에게 든든한 도움의 되게 인도하소서
4. 동역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동역자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소서
5.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소서. 남영미 선교사의 자가면역질환과 저체온증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사, 암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체질로 바꾸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6. 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일본 최대웅 / 권나현 선교사

1. 현지 교회의 부흥과 자립을 위해: 새롭게 세워진 요시무라 장로님과 제직들이 성령으로 무장하여, 가스가이 교회가 지역의 영혼들을 품어내는 온전한 구원의 방주로 서가게 하소서.
2. 다음 세대와 저희 가정을 위해: 다가오는 여름 캠프를 통해 일본의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도 아내 권나현 사모와 세 자녀(서화, 준, 리나)가 영육 간에 늘 강건하도록 지켜 주소서.

탄자니아 오판석 / 정미라 선교사

1. 주님과 의 임마누엘과 살롱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잘 구별해 따라갈 수 있도록
2. 저희 부부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3. 주님께서 주시는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고 잘 따라 갈 수 있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1. 학회를 준비하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잘 준비되게 하소서
2. 이번 학회를 통해 소멸 위기 언어들이 보존되게 하시고, 많은 선교지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현지인들의 심장을 울리는 온전한 성경을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소서
3. 김운용 선교사에게 주신 언어학적 지식과 달란트가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4. 동역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동역자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소서
5.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소서
남영미 선교사의 자가면역질환과 저체온증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사, 암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체질로 바꾸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6. 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의료선교 (7/16-7/19)
디렉터: 김영수 장로
팀장: 제임스 황 집사

- 과테말라 인카운터 4기 (7/18-7/25)
S/L: 변재령 목사
렉터: 정창희 집사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페루 아야쿠초 인카운터 1기 (8/16-8/23)
S/L: 이창석 목사
디렉터: 이재근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 몽골 TD 2기 (8/29-9/8)

S/L: 한기홍 목사
렉터: 스카이 박 집사
문의: 858-335-9415

- 중미 AFA 2기 (9/6-9/12)

S/L: 송중호 목사
렉터: 이항복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O/T: 7/1(수), 웨딩채플, 7pm

- 인도개척선교 모집 (10/25-11/4)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O/T: 8/12(수), 7pm, 웨딩채플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